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0. 25 ~ 2020. 11. 14 제235호



▲ 파키스탄의 여인들과 아이. 제공: WMM

##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파키스탄의 전통 의상인 노란색 사리를 입은 여인이 아침 일찍 서둘러 예배당으로 향한다. 자세히 보니 바로 뒤에 아이의 손을 잡은 여인이 뒤따라오고 있음을 그림자가 보여주고 있다. 언뜻 봤을 때 노란 사리를 입은 여인이 아이와 손을 잡고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뒤에 가려져 있었다. 이러한 착시는 우리의 일상에도 많이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상

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 공기를 주신 주님은 보이지 못한다. 원래 있었고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안다. 청년의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불끈 솟는 힘으로 부딪치는 상황마다 돌파하고 헤쳐 나가다 보면 어느새 쌓여진 능력과 노후가 그것을 이룬 줄 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모든 상황이 막히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그동안 되어온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착시와 착각이 벗어지는 순간이다. 지금,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열왕기하 6:17) [GPNEWS]

다음 호는 11월 15일자로 발행됩니다

## 화합과 관용의 부르키나파소, '기독교 테러' 급증

대선을 두 달 앞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예배당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서아프리카에서 종교간 화합과 관용의 보루로 여겨졌던 부르키나파소에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와 다른 민병대가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면서 무슬림과 기독교의 예배당과 종교 지도자 모두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4년간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무장단체와 싸워왔지만, 부실한 성과와 정부 관련 세력의 위법 행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CIRF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인용, 이 나라의 이슬람과 기독교 공동체 양쪽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최소 38명이 표적 살

해를 당하는 등 ‘전례 없는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5월 툴페(Toulfe)의 한 가톨릭교회는 미사 도중에 중무장한 괴한이 난입해 4명의 신도를 살해했다. 2월에는 판시(Pansi)의 한 교회에 무장괴한들이 습격해 사제 등 24명이 살해됐고 8월에는 무장 세력이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를 공격해 3명이 숨졌다. 또 작년 12월에는 니제르 국경 인근 교회에서 괴한들의 습격으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4월, 한 개신교 목사와 5명의 신자들이 말리 국경 근처에서 지역 민병대에 의해 살해됐다. 또 한 올해 2월 지하디스트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은 세바(Sebba)의 한 목회자 집에서 7명을 납치했고, 며칠 뒤 목회자를 포함해 5구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르키나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테러의 배후에 ‘이슬람국가’와 ‘안사룰 이슬람(Ansarul Islam)’과 같은 지하드 계열의 조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USCIRF는 “분석가들은... 항상 종교적인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이 단체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특정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PNEWS]



▲ 부르키나파소의 교회.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복음기도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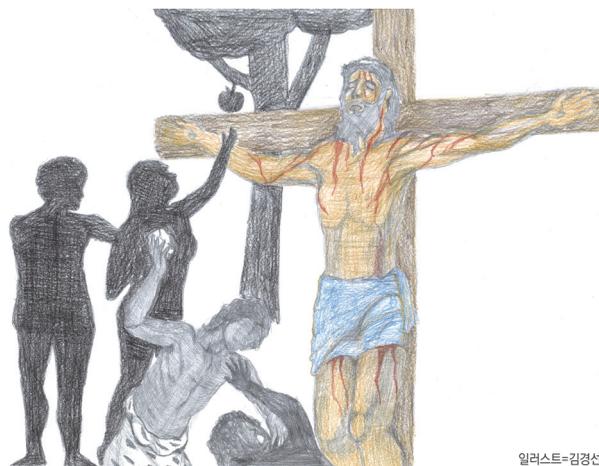
### 마음의 눈을 밝히사 (19)

## 생명에 죄가 들어온 사실을 아십니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 생명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왜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일까요? 죽음은 생명체에만 존재합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 생명

을 사망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육체가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원형의 생명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특성을 망가뜨려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과 하와는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웠습니

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 이후 그들 안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으로 교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의 본능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자녀인 가인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물과 통곡은 앞으로 온 인류에게 닥쳐 올 절망과 고통의 신호탄이



일러스트=김경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향해 성경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면 “생명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죄의 삶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죄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존재의 문제입니다. 훈련으로 죄인을 개과천선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존재를 변화시키신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살리려고 진정된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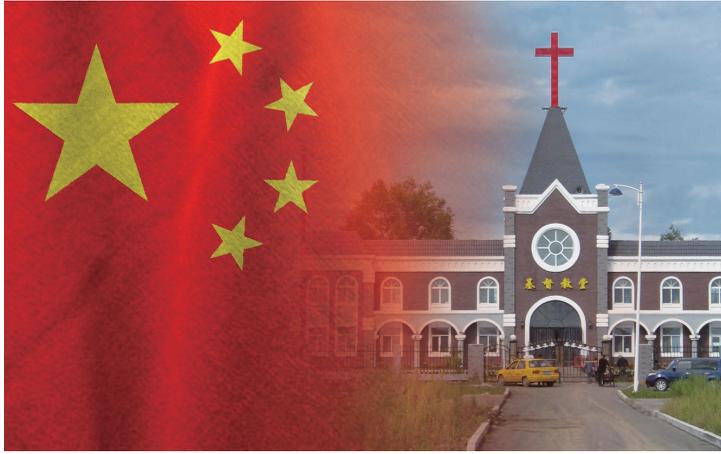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 중국, 교회 십자가 대신 五星으로 교체하라



▲ 중국 정부의 교회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중국 당국이 올해 수십 군데의 지역 교회에 십자가 대신 공산당을 상징하는 '오성홍기'에 그려진 다섯 개의 별 문양(五星)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종교 자유를 위한 전문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따르면, 지난 8월 장쑤성 주장시(九江市)는 기독교협회 등을 통해 70여 개의 소속 교회에 십자가를 오성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으며, 9월 초 주장시 종교국은 교회가 사용하는 도장에 '기독교(基督教)'라고 쓰인 한자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지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종교 중국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교가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지시 아래에 복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 란링(兰陵)현의 다중군에 위치한 수많은 삼자교회에 십자가가 철거됐으며 대부분의 종교적 상징물과 구조물도 건물에서 제거됐다. 지난 4월 연합전선부는 린이(临沂)시 삼자교회 목회자들을 긴급 소집하고 "기독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예배 장소를 더욱 제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모든 공식적인 장소에서 교회 십자가 첩탐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며 이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철거한다고 목

회자들에게 경고했다.

중국인 불교,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등 5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헌법에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교 행위에 대한 보호는 '정상적 종교 활동'으로 제한하며 탄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국가가 승인한 성경 번역에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은 지난해 말 학자들을 소집해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해 고전 교리를 정확하고 권위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 관영 전자과학기술출판부가 발행한 교과서에서 요한복음 8장 3~11절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왜곡하여 날조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중국이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며 반기독교 정책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어둡고 도덕적으로 쇠퇴하고 민족의 수난을 당하는 절망의 때에 부흥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자. 하늘이 어둡게 보이지만 지평선 너머에 빛이 있음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자. [GPNEWS]

# 미국 선교 단체들... 코로나 위기에 온라인 사역 전환

미국 기독교 단체들이 코로나 사태로 청년들을 대면할 기회가 줄자 가상 디지털 방식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연합을 추구하는 캠퍼스 선교단체 '베타 업실론 크라이스트(Beta Upsilon Chi, BYX)'는 1985년 텍사스대학교에서 설립 돼 17개 주, 39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뷰나 대규모 지부회의 등은 가상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했고 매주 지역 교회에서 소규모 셀그룹 별로 만나,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보다 큰 규모는 가상 모임을 열고 있다.

브라이언 리 BYX 회장은 "10개, 20개 혹은 30개까지 셀 그룹이 모여 가상 지부회의를 함께 지켜보고, 회의 전후로 그들이 소집단 모임을 가지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며 "우리는 여전히 제자 양육을 하고, 형제들은 공동체라는 틀에서 격려와 도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규제가 오히려 "각 부처가 어떻게 다르게 일할 것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우리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 미국 기독교 단체들이 SNS를 이용해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freelyphotos.com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일들을 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네비게이토선교회'는 과거 박람회, (설문)표 작성, 캠퍼스 만남 등의 사역에서 방향을 바꾸어 소셜미디어,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학생들과 관계를 본격적으로 맺고 있다. 네비게이토의 노아 하스는 학생들과 청년 목회자들을 기존의 교회와 캠퍼스 사역에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에브리 스튜던트 센트'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은 혼란을 통해 일하신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의존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이러한 도전에 해답을 갖는다고 믿기에 학생들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700개 대학 3만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는 대학생 복음주의의 기독교단체인 '인터버시티(InterVarsity)'는 줌(Zoom), 페이스북 라이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과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놀라운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임스 정 인터버시티 부회장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남은 마치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와 멘토를 바라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다."며 "이런 간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6 ~ 10.17)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한국 '성범죄 교사' 5년간 881명... 이중 절반은 교단 복귀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초·중·고 교원이 881명으로 이중 532건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는 '학생'이며, 징계 교원 중 약 47%에 달하는 411명은 경징계 및 교단 복귀 가능 처분을 받았다고 뉴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331건, 성매매 60건 등 순이었다.

주님, 올바른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가 성범죄를 일으키는 안타까운 사건을 봅니다. 도덕과 교훈을 가르치지만 그 내용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교사들의 마음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 파키스탄, '신성모독' 사형선고 기독교인... 6년 만에 무죄 판결

파키스탄 고등법원이 2013년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 기독교인, 사완 마시흐에 대해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과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약 80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 중이며, 이들의 절반은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파키스탄에서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수감되어 있던 사완 마시흐와 수감된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해도 모든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도록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소서.

### 키르기스, '선거 무효화' 부정선거 인정

야권의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명의 선관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6일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중앙선거위원장 샤일다베코바는 투표과정과 선거운동 기간에 대규모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야권 정치인이 신임 총리에 올랐다.

주님,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남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완전한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판단하는 사람들을 더욱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0월 26일 ~ 11월 13일

- 10월 26일 ~ 10월 31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최\*\*)010-4145-3317, 10.26~30(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0.26,28~31(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0.27,29~31(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0.29(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10.3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0.30(11~24시) ▶경남 김해 / 최\*\*,김\*\*가정(김\*\*)010-9922-7123, 10.30(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10.30(09시)~31(12시) ▶대구 달성 / 하늘교회(정\*\*)010-9557-5154, 10.30(10시)~31(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 11월 2일 ~ 11월 7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11.2(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1.3(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1.3~6(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43-9397, 11.5(0~24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11.5(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1.6(13~24시) ▶경남 김해 / 함께지어져가는교회(이\*\*)010-5598-5583, 11.6(12시)~7(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1.7(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10교회 진행중.

- 11월 9일 ~ 11월 13일** 11.9~12(10~20시) ▶전북 완주 / 복음과기도의집(김\*\*)010-4743-9397, 11.9,11~13(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10,12~13(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1.12(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1.12(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의 근현대 (2)

#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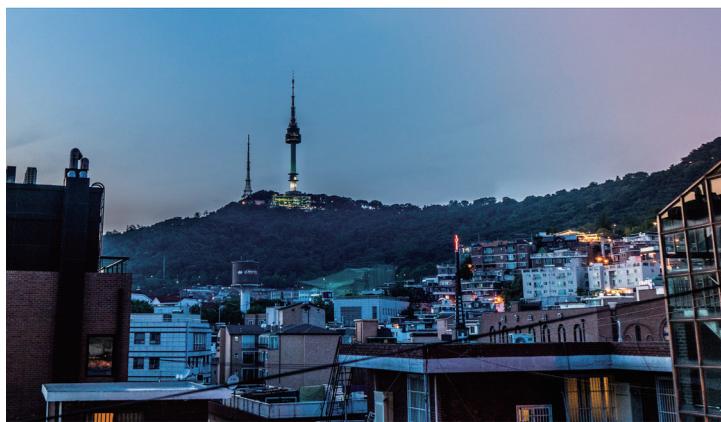
지난해 중동 지역 A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다. 80년대 학번인 그는 오래전 한국을 떠났다고 했다. 모처럼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반가움에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진행됐다. 선교지의 상황, 앞으로의 사역방향.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한국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올랐다.

자연스레 유신정권,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쯤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시대의 아들'인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중에서 나의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견해를 피력하는 주제는 예외 없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보수정당과 한국교회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다 맞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런 견해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있다. 과거 역사를 오늘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나오는 오류들이다. 필자 역시 그랬다.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해방 이후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장면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왜? 그렇게 배웠고, 청년 시절 그런 책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친북적인 발언과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바라보게 되면서 고개를 가우뿍거리기 시작



▲ 빨간 네온 십자가가 서울 도시 곳곳을 밝히고 있다. 제공: 현승혁

했다. 더욱이 주류언론들의 편향된 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기업가와 가진 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시선들. 무소유의 선교사인 필자는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될 수록 혜택을 받을 영역이 커져가겠지만 불편했다.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비 기독교인이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들까지도 이 같은 친사회주의적 정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덕분에 필자는 선교사로서 성경 연구와 함께 지난 몇 년간 한국 근대 역사와 인문학 서적 탐독과 전문가들의 유튜브 강의 수강을 통한 학습을 병행해야 했다. 힘든 시간을 거쳤다. 모르긴 해도 필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뭐가 문제지? 그런 마음으로.

책을 한 권씩 손에서 놓을 때마다, 강의를 듣고 난 이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섭렵했던 자료를 일렬로 쌓아두면 방 높이만큼은 족히 채워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을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처럼 놀

라울 수가 있을까? 감탄이 밀려왔다. 후회와 회개的时间이 있었다.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만사를 재단했던 지난날의 발언과 생각에 대해 반성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여전히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료를 찾아보고 지난 역사에 대해 내 마음 속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나눴다. 그 선교사님은 그리 길지 않은 대화 이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음을 인정했다. 그 배경에는 '빛진 자의 심정'이 있었다. 학창시절 운동권 친구들이 데모를 주도하고 고생을 할 무렵, 자신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한 범생이로서 그 친구들의 고통에 뒤늦게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그분을 포함, 최근 필자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무지했네요.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네요. 그 날 이후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더 주님의

뜻을 묻게 되네요." 등등 많은 고백을 듣고 있다.

물론 지난날 우리의 역사에서 부끄럽고 아쉬운 순간들이 많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을까? 우리 개인의 삶도 지나고 보면 아쉬움 투성이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이제 사리분별을 조금 할 수 있게 됐는데, 팔다리에 힘이 없고, 해산할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지난날을 되짚어보던 중 필자와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만나게 됐다. 아니 대부분이었다. 누군들 처음부터 온전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 부끄럽고 아쉬운 과거 역시 우리의 자화상

그래서 이 기획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담게 될 것이다.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중간 중간 틈새가 벌어진 논리전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바로 알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들이 보배처럼 여겨질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닫고 지금까지 이민족을 인도해오신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에는 이것 하나만 얘기하자. 자녀일 때는 부모 심정을 결단코 알 수 없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 급역을 받아보다가 어느 날 급역을 지급하는 입장이 되면서 나의 상사였던 경영자들의 심정을 알

게 됐다. 단 한 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고뇌와 눈물을. 또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며 전당포를 가야 하고, 그렇게 빚쟁이에게 시달리던 부모의 늘어진 어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짚어볼 수 있게 됐다.

아마도 지금 크고 작은 조직의 권력자들은 내심 통절한 회한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권력만 잡으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나라와 조직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구나.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달려왔는데. 지금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니 어찌하랴.

어느 누군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수고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나의 판단과 분별을 믿고 잘하려고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진 결과를 어디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때 돌이키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사탄이 자신의 권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순간이 자신의 정수리가 깨어지는 순간임을 어찌 알 수 있었을까? 사탄은 결코 몰랐다. 나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찬양한다. [GPNEWS]

김갈렘

## 월드 뉴스

### 아프간 과부 대상 재봉기술 가르쳐 자립기반 마련

#### 힘펀드, 한국과 미국에 의류 및 장난감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중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누리아(25)는 중학교 3학년 나이인 17살에 결혼했다. 그리고 18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 택시운전사였던 남편은 4년 전 현지 테러단체에 납치돼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시택에서 쫓겨나 시부모에게 아들을 빼앗겼다. 이후 여성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찾아오려고 했지만, 정부당국은 누리아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누리아는 이때 자국에서 과부와 고아를 섬기고 있는 비

영리단체 힘펀드를 알게 돼,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 재봉기술을 배우며 자립기반을 갖춰나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누리아에게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현지에서 이 같은 과부와 고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힘펀드는 현재 봉재공장을 설립, 재봉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양한 의류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에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힘펀드 서우석 대표는 "현재 애완동물의 옷이나 장난감 등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제품의 디자인과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10여 년간 이 단체를 운영해온 서 대표는 수익금 전체는 자체 운영 중인 재봉학교 설립과 운영에 모두 재투자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재미교포 1.5세인 서 대표는 미군 의무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



▲ 비영리단체 힘펀드가 아프간에서 운영하는 재봉학교의 모습. 제공: 힘펀드

견돼 활동하던 중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와 고아들이 많은 현실을 보고, 이 같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지난 10여 년간 양국

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문의: william.seo@hemefund.org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42)

## 진화론의 거짓말로 도배된 과학 교과서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적대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단지 진화론에 반대할 뿐이다. 그것은 과학의 일부가 아니라 거짓말이며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

18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여러 나라의 공립학교 과학 교과서들을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빅뱅과 지구의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구는 수십억 년 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배우는 헬거인이라는 것도 없다. 아이들은 공룡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배운다. 사실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살지 않았다. 나는 과학에 반대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 십계명은 '거짓증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화론을 공립학교에서 빼내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론이라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창조론을 학교 교육에 집어넣으려는 것도 아니다. 이 둘 중 하나를 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은 시간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목적을 성취하려고 수백, 수천 달러를 허비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서에서 거짓말을 없애려고 노력할 뿐이다.

위스콘신에는 교과서가 정확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앨라배마도 그렇다. '교과서는 타당해야 하며, 현 시대적이어야 한다. 최신 정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텍사스도 이런 법이 있다. '지도 자료는 사실적

이어야 한다.' 플로리다도 지도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법이 있으며, 위원은 정확하지 않은 책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교과서는 사실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현 시대적이고 검증된 연구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네소타에서는 '선생님들은 주제를 고의로 숨기거나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들 어느 곳도 자기들의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약 100년 전의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기도는 의무이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욕구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헛되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공립학교의 교과서였다. 그러나 요즘 교과서에는 "진화론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새는 새가 아닌 것으로부터 진화했고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 과학 교과서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담겨 있다. 출처: unsplash

으로부터 진화했다.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번은 오클라호마주의 치카소에서 열린 진화론 세미나에서 그중 한 파트인 창조론 세미나에 나를 초청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진화론을 배웠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뿐이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그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세미나에서 양쪽 편을 다 들어보라고 말하지만, 결코 양쪽 편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진화론만 보여준다.

오클라호마주의 치카소 대학 교과서의 1/4은 오직 진화론의 가르침에만 헌신되어 있다. 창조론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화론은 오직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죽어가는 종교일 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책은 100장이 넘게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창조론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그러므로 양쪽 편을 다 들어보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한 가지 견해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세뇌'다. <계속> [GPNEWS]



선교 통신

### 처음 경험한 교회 앞의 긴 행렬... 코로나가 가져온 은혜의 순간

일본에서는 유독 사람들의 행렬이 많이 볼 수 있다. 주일 아침이면 파친코(슬롯머신)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유명한 라멘가게나 맛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을 심심찮게 본다. 특히, 관광지 유명한 교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교회 앞에 길게 늘어선 행렬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험했다.

지난 4월 부활절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학교는 휴교하고, 모든 모임들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긴급하게 전환해야 했다. 모든 활동이 위축됐고, 계획했던 '방과후 교실'과 '지역 아동식당' 사업도 중지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남겨진 200여 개의 마스크를 생각나게 하셨다. 당시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가게에서도, 인터넷으로도 살 수 없었고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배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때라 사람들은 손수 천 마스크를 만들어야만 했다. 처음에는 200개의 마스크를 지역의 사람들에게 배부하려고 단순하게 계획했는데, 팀



▲ 일본의 거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유튜브 채널 CBC News: The National 캡처

의 피터(홍콩) 선교사를 통해 홍콩의 교회들이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꼈다.

낮을 가리는 일본인들의 특성상 교회에 마스크를 받으려 많이 오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노인들이 사는 집을 우선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배부하기로 했다. 첫날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한 가구당 5장씩 들어있는 마스크 1팩씩 총 500장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베노 마스크로 알았다가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인들 중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가 마스크를 받고 너무 고마

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다. 재봉틀로 마스크를 막 만들려고 했다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겠다."며 감사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거리에 나와 마스크를 받고 이웃끼리 서로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를 골목 반대편에서 들으며 우리는 다음 집에서 다음 집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마스크 배부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 늘 지나던 거리와 집들이 새삼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외국인으로 살면서 주변에 대해 뜻하지 않게 경계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날은 마을 전체가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찬 듯했다. 나눔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의 무게를 알 수 있었다.

#### 노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기도

그리고 둘째 날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소량으로 배부했다. 셋째 날도 역시 교회에서 마스크 배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지한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이른 시간부터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다. 2시간만에 1팩에 10장씩 들어있는 마스크

200팩인 총 2000여 장을 배부했다. 한 지인은 '마스크를 살 수 없고 전매해서 가격을 올려 받는 상황에 교회의 마스크 무료 배부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자존심 강하고 낮을 가리는 일본인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마스크를 받고자 교회 앞에 줄을 섰다. 마스크 배부 사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는 "다음에 또 와주세요."라는 부탁을 했다. 일본에 와서 또 와달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며 그때를 간절히 소망한다.

짧지만 긴박했던 2주 동안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에 총 9500장을 배부하고, 의료기관에 500장,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 1100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던 2주간은 코로나19가 열어졌던 틈새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GPNEWS]

이충규 선교사(WEC)

####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 복음의 능력

####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영적 실패자

이 세상에 속한 자연인, 영적인 사람 외에 또 다른 부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자연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저급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애급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4백년 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본향으로 삼지 않았다. 은혜의 상태에 들어 왔지만, 신령한 삶을 위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고 애급과 거룩한 땅 사이에서 세월을 보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자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실패자로 살다가 영적 실패자로 죽었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죽음은 두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있어요”

주님 사랑으로 충분한 김상용, 전진희 집사 부부(게르교회)



© 복음기도신문

경기도 광주의 가파른 골목을 올라 김상용 집사의 집에 도착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모습치고는 매우 건강해 보였다. 자신은 인터뷰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며 밝은 얼굴로 나눠주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죽음을 삼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였다. 주님과 함께 하는 김 집사 부부의 행복한 암투병기를 들어봤다.

- 암이 언제 처음 발병된 거죠?

김상용(이하 김): “작년 7월에 처음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여 동안 휴직을 준비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어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한 검사를 받고 있었고, 만성이기 때문에 급성처럼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언제 급성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만성일 때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만성이다. 주님께 얹드리겠다.’며 보존적 치료만 하겠다고 했어요. 주님께 얹어지기 위해서 8월 말에 휴직계를 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복음학교 섬김이를 지원했어요.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복음학교에 가는 일이었거든요.”

**작년 7월, 암 진단을 받다**

- 예상 밖인데요. 보통 암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부터 할 것 같은데요.

김: “그때는 의학의 발전과 한계를 동시에 발견했기 때문에 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복음학교 섬김이와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기로 한 것이죠. 주님께 얹어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전진희(이하 전): “남편 직장이 바빠서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학교를 한 주 마치고 나서 암이 급성으로 바뀌었어요. 병원에서는 급하게 골수검사 날짜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빨리 검사 일정이 잡히기 드문 일이라며 우리에게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하필 중보기도학교가 개강하는 날이었어요.”

김: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을 것이냐를 택해야 했어요.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기로 하고 훈련을 받기로 했어요.”

전: “이후에 3곳의 병원을 방문하여 항암치료가 바로 진행되지 않고 학교훈련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덕분에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칠 수 있었지요. 학교훈련과 모임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었고, 병원 진료도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진료가 있는 날에는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훈련과 모임을 위해 다음 날 수혈을 받기도 했지요. 그런데 남편 아웃리치 기간에 이식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남편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이 부르셨는데, 아픈 몸이지만 이식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발 또 내딛었는데, 주님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 의지가 매우 확고하셨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 “병원에서 왜 일정을 바꾸냐고 좋아하지 않았지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병원

“  
 암에 걸려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며 말씀따라  
 가고 있어요”

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 편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할 순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편을 택해야죠. 병원하고는 일정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병원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대신 기도 아웃리치를 선택**

-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김: “순간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죽음을 통해 비로소 그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입원하

고 나서 내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한두 명씩 사라졌어요. 밤에 잘 때는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제 살고 싶지 않으니 죽어 달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죽어 달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도 하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죽어 나가는 영혼을 볼 때, 저 죽음을 내가 맞는다면 ‘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준 건 뭘까? 주님께는 내 삶을 뭘 드렸지?’ 생각해보게 돼요. 몸이 연약해지거나 마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움도 찾아와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 나는 남은 시간에 뭘 해야 할까? 고민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건 아내의 기도예요.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내가 약할 때마다 견져줬던 것 같아요.”

-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나요?

김: “이번 투병생활 중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7~3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

라 갈 거냐.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위해 죽으라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련님과 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남편이 만난 복음을 나눴어요. 남편은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갈 수 있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 감격적인 시간이셨겠네요.

김: “형이 은둔형 외톨이로 30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형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금 제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돼요.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일으켜 주셨으니 형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왔는데 30년이 넘도록 형은 그대로고, 저까지 암에 걸려서 가족들 마음이 매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살 길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30년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시간이 걸려도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모두 구원하신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들었어요. 마지막 치료방법은 조혈모세포 림프구 주입술인데요, 성공 확률이 10%라고 했어요. 잠깐 마음이 낙심이 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힘차게 일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고비도 여러 있었어요. 인도하실 주님을 믿을 뿐이에요.”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며**

- 고비가 또 있으셨군요.

전: “작년 12월 3일부터 8일간의 고용량 항암치료 이후에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아웃리치가 12월 9일 출발이었고, 아웃리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22일부터 갑작스런 고열로 응급실로 입원하게 됐어요. 간의 농양으로 고열이 났다고 했어요. 고열로 인해 급성으로 진행됐던 암세포 수치가 푹 떨어지고, 각종 약물로 염증수치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회교신수님은 염증수치를 살피며 바로 이식 수술을 진행할 계획이셨어요. 그때 전공의 선생님이 오셔서 남편에게 이대로 이식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는 이식을 미루고 퇴원했죠. 덕분에 남편은 아웃리치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아웃리치 출발 일에 오전 일찍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외래주치의 교수님이 CT사진을 보며 ‘이것은 신의 뜻’이라면서 이대로 이식을 진행했다면 100%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부터 치료한 다음에 이식 일정을 다시 정하겠다고 하셨죠. 부르심 따라, 말씀따라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됐죠.”

- 주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병간호가 힘들진 않으세요?

전: “다른 사람들은 투병 중에 몸이 힘들어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건 아파도 참고 인내하면서 짜증 한번 내지 않아요. 그게 신기해요. 말씀을 붙들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도 ‘여보! 좋지 마.’ 한마디 하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순회선교단 중보기도학교 훈련 아웃리치 팀원들과 함께. 제공: 김상용 집사

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시는 이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암에 걸려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저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모양이군요?

전: “어느 날 함께 훈련받았던 전도사님이 집에 오셨다가 남편에게 ‘치료만 받다가 병상에서 주님이

- 가족도 김 집사님도 속히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어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데려가셨죠.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병들고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구나. 사명자는 사명이 다해야만 데려가신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열방을 구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확증했어요. 올해 4월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 어제 병원에서 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할 때 시한부 6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참된 예배자 (7)

#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 건물이 아닌 성전 된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1,24) 성전 건물 중심의 예배에서 심령 성전의 예배. 말라기서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 1:11)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성취되었다. 모든 이방인들이 있는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복음기도동맹은 예배에 대한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 주신 진리의 복음과 계속하여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취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기철, 손양원 목사는 변절한 목사들이 예배에 타협을 요구할 때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경배하거나 경배의 모양도 취하지 않겠다.’며 순교의 길을 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담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끊을 자가 없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생명력 있는 예배자는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며 예배에 성공하고



일러스트=이예원

승리한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감격하여 울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죄 사함의 감격을 가진 예배자여야 한다. 시련 가운데 어렵다가도 그 사실만 톡 건드리면 눈물이 터지고 가슴에 불이 붙어 그까짓 문제가 별거 아닌 승리

하는 믿음을 가진 예배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내밀어주시던 그 때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예배자 말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주님은 아담이 실패한 예배를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사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완벽하게 축복해 주셨다. 주님과 내가 한 운명이 되어, 실패로 보이든 무능력으로 보이든 상관없이, 주님 손에 주권이 넘어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기억하라. 예배만 회복되면 우리의 실패는 승리가, 어둠은 빛이, 부끄러움은 영광이 될 수 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2018년 2월) <끝>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알림

복음기도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EVENT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사업체 광고 게재

복음기도신문이 주님의 은혜로 올해 창간 10돌을 맞았습니다. 2010년 출범한 복음기도신문이 1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 되신 동역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독자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허락된 여건에서 복음기도동맹군 여러분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체나 제품 정보를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 | 복음기도신문 1년 이상 정기구독자 (복음기도동맹선언문 및 행동강령 서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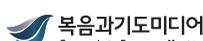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내용** | 신청자의 회사 소개나 제품정보를 본지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단, 본지가 마련한 성경적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게재조건** | 은혜로

**문의** | 010-6326-4641, gnmedia@gnmedia.org

\* 복음기도동맹군이란 2011년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열린 다시복음앞에 대회 이후, 복음과 기도를 삶의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의 호칭입니다.



## G&P 신간 | 비상한 때, 비상한 응답

### 위기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살률 세계 1위와 사상 최악의 실업률, 사상 최대의 부채, 낙태죄 폐지 위기와 코로나 여파에 따른 예배의 저항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위기감을 느낀다. 평상시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아무렇지 않겠지만 이런 위기를 맞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역사상 신앙의 위기가 오면 순교하거나, 변절하거나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순교를 했던 사람들은 뜻을 정하여 실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 그러나 변절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여 보이는 상황에 넘어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

역사에는 늘 위기가 있어왔듯,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언제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일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예견된 박해 내지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비상한 때에 어

떻게 비상하게 응답했는지 설명하며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 도전한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았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만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나라를 이 곳에 세우실 것을 그는 알았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세계의 역사를 다 동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은 강하여 옹명을 떨칠 것이다.

저자는 단호하게 도전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아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의 의



김용의 지음 | 복음과기도미디어 | 100p | 값 9,000원 | 2020

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가장 뜨겁게 쏟아 붓는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일어나길 바란다. 믿음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전위부대가 불길처럼 일어나길 소망한다. [GPNEWS]



# “요즘 교회 안 나가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다

올해 초 신천지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백화점 관리자로부터 “신천지 아니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매니저님, 교회 요즘 안 나가지? 이럴 때 교회 가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라는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저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옵니다.”라고 답을 했더니 아연실색하여 적당히 타협하길 바라는 얘기를 한다.

‘내가 예배드리고 오는 게 백화점 영업에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교체해라. 나는 퇴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더니 그때서야 수그러지며 잠잠해졌다.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나 지났을까. 기독교만 특정지어 전산등록 후 선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또 어느 교회인지 분류하여 확진자 발생 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일러스트=고은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 사회 개인 휴대폰으로 일제히 입력할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됐는데 그 문항 첫 번째가 여러 종교 중 해당되는 종교를 선택하는 문항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종교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의 교회를 출석하는지, 그 다음이 교회 이름과 살고 있는 지역을 적는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타깃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넘쳐났다. 불교를 선택하거나 무교를 선택하면 1번 문항에서 끝나

는 설문이다. 그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 밑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오며 눈물이 났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왜 우는 거니. 너 혹시 갈등하는 거니? 두려워서 우니?’ 아,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시간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경쟁사 브랜드보다 내가 이겨야 할 텐데 등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자랑스럽게 드러

낼 수 있는지 되물었다. 그리고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교회 주소, 교회 이름, 주일 성수 여부 등을 써 내려갔다.

그 시간을 통해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무지해 보이더라도 세상을 거스르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다. 대책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슬프고 억울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 현실 앞에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달려가게 하시길 기도한다.

[GPNEWS]

박경란

## 그림 묵상



###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어린 꼬마가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 음식을 찾는 제자들에게 그 작은 손으로 들고 나온 것은 자기의 도시락이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어른이라면 절대 시도도 안했을 것이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군중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수줍은 듯 배고픈 예수님이 걱정되어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은 그날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한 저녁식사가 됐다.

무엇이 굶주린 영혼들에게 양식이 되어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작고 초라한 모든 것은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GPNEWS]

그림 이수진

## 부흥을 위하여

# ‘코로나 경제난’에 목숨 걸고 국경 넘는 북한 꽃제비들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국경 접근자에 대해 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꽃제비들은 감시의 눈을 피해 중국 국경도시로 넘나들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 “지난 4월부터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인근에 북한 꽃제비가 목격되고 있다.”며 “이들은 신의주나 의주군 일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 흐르는 압록강은 강폭이 넓은 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첨단 카메라를 이용해 상시 감시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사격’을 명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강(渡江)이 쉽지 않지만, 그런 장애물이 이들의 중국행

을 막지는 못했다. 소식통은 “이 꽃제비는 사람이 많은 시내가 아닌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발각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으로 숨어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경 지역인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서도 꽃제비들이 북한과 중국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혜산에 꽃제비가 늘어났고, 7명 정도 무리를 지어 다닐 정도로 패거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평상시에는 강가에 가서 고철이나 플라스틱 물병을 줍고 다니다가 밤에 몰래 중국에 넘어가 농작물 등을 훔치는 등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내부 소식통은 “예전에는 꽃제비가 줄고 있었고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꽃제비를 잡아들

였는데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나빠져 급격하

게 늘어났다.”면서 “이들은 위해 잠시 중국에 간 것”이라고 탈북보다는 먹을 것을 찾고 설명했다. [GPNEWS]

## 퀀타나 “남·북한 정부에 ‘공무원 피살’ 공식 자료 요청 고려”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퀀타나 보고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밝힐 의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며 또한, 한국 정부로 (북한인권·탈북자) 민간단체 (사무검사) 관

련 서한을 보낸 것처럼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앞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사무검사 등에 나선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차원의 공식 서한(allegation letter)을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 유엔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은 인권 침해와 정치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로부터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가 최

근 사무검사를 마친 22곳에 대해 등록 허가를 취소해야 할 법인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자신을 포함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good listening)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GPNEWS]



▲ 북한의 꽃제비. 출처: 유튜브 채널 국민통일방송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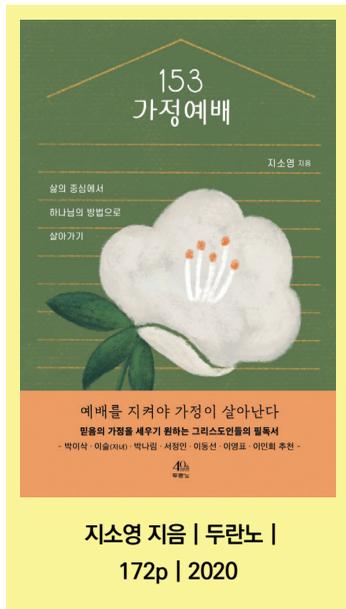


▲ 토마스 오헤아 퀀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출처: 유튜브 채널 United Nations 캡처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지소영 <153가정예배>

## 25년간 가정예배를 지켜온 감동스토리를 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 가정 구성원의 특성 등 말 못할 다양한 사정으로 가

정예배가 남의 집 얘기이기 일쑤다. 그런 사람의 귀를 종긋거리게 하는 25년간 진행돼온 가정예배 이야기를 담은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란 부제를 담은 책 ‘153가정예배’가 그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작가 지소영씨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25년간 끊이지 않고 가정예배를 지켜온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엮어 낸 ‘가정예배 사수(死守) 스토리’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던 필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결혼한 뒤,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서 가정의 원형은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필자는 말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 누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 하

나님이 하신 일이다.”

가정예배의 전형을 친정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필자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털어놓는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모이지 못할 이유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럴 때면 가정예배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다. 그러다 예배를 한동안 중단하기도 했다.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된 예배는 153예배라는 형식을 갖게 됐다. ‘1’은 말씀을 읽고 나누기, ‘5’는 감사제목 5가지, ‘3’은 기도제목 3가지. 그렇게 조정된 예배를 통해 가족은 예배를 마치면 하루의 삶을 다 들을 수 있게 됐다.”

그 이후 가정이 누린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빠, 엄마와 아들, 딸의 친밀함은 물론 자잘한 일상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가정예배와 개인의 목상을 통해 한

걸음씩 선택하는 가정으로서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 누에가 만든 실로 비단을 짜듯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순종의 기쁨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다. 또 필자의 간증을 듣고 153예배를 시도한 다양한 가정의 사례와 가정예배 매뉴얼, 예배시간, 예배의 어려움, 예배 태도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까지 포함, 가정예배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또 가정예배가 단순히 좋은 습관을 기르는 자리가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자리라고 말한다. 또 대단한 기적의 사람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자리라는 주장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아들 박이

삭 군은 이렇게 말한다. “저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저는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가정예배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책이 많은 가정에 격려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화목함의 비결은 가정예배입니다.”

또 딸 박이슬 양은 이렇게 책을 추천했다. “제가 부모님과 산책을 할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아빠, 엄마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두 분입니다. 제가 딸이어서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20년간 보아온 부모님은 진짜 좋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PNEWS]

C.K.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레스보스 난민캠프에 부흥의 꽃이 피었습니다

만 24시간을 넘겨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드디어 레스보스섬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며 언뜻 임시 난민캠프를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수십 개의 텐트입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바로 앞에 터키가 보입니다. 이 짧은 거리를 고무보트 타고 건너오다 빠져 죽는다니.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과 상반되는 캠프 모습과 실상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독일, 영국, 한국. 다국적팀으로 모여 오리엔테이션과 일정을 의논합니다.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전혀 계획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역현장이네요. 이것이 난민들의 일상이겠지요.

난민캠프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피스센터(peace center)로 매일 난민들이 건넵니다. 화재 이후 급작스럽게 마련된 캠프여서 화장실, 샤워실조차 마련이 안 되어 있기에 센터로 와서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해서 갑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소모적인 일상이 천하보다 귀한 난민들을 섬기는 긴급한 사역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레스보스로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300명이 넘는답니다. 거의 매일 센터를 찾아오고 선생님들을 만나 성경공부



▲ 레스보스섬 난민캠프의 모습. © 복음기도신문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사이 어떤 이들은 벌써 제자의 삶을 선택해 캠프의 다른 동쪽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것이 없으나 하늘아버지가 친히 마련하신 선한 길과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난민선교사대에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추수 현장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1차팀의 개척자와 정탐꾼의 미션을 위해 계속 팀 안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대표 자격으로 오신 사무국장님과 난민구호단체인 피난처 대표로 파송된 간사님과 장기로 헌신하고 들어온 청년대표와 줄지에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어버린 저까지. 현장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인프라와 준비가 필요할지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두 번째 센터에 대한 마음이 부여졌는데 어제부터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치된 다음세대를 위한 난민스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녀 유진이가 여름방학 중 레바논 난민캠프에서 두 달간 학교를 섬겼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열정 넘치는 한국교회의 청년세대들이 난민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겠다는 데까지 마음이 미칩니다.

캠프 내에서 의료봉사하는 국제팀을 만났습니다. 난민들의 시급한 필요와 의료팀의 필요를 물어봅니다. 임시텐트가 바닷가여서 잘 때 필요한 담요와 비타민과 위장약 등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 보내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구입해서

즉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주하게 사역이 돌아가고 갖춰진 것이 없는 어수선한 현장이다 보니 팀이 함께 모여 깊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서양팀들의 특성상 간단히 한 구절 묵상하고 짧게 기도를 마치기에 집요하게 강청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편 현장의 형편을 아시기에 한국에서 그리 기도를 동원하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다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고 정확하게 난민캠프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소름이 끼치도록 놀라웠습니다. 외모들도 예뻐지만 그 차원을 넘어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들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싶도록 감동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밭이 희어진 추수의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아멘입니다. [GPNEWS]

이채선 사모 (충신감리교회)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레스보스의 현장 리포트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자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0. 9. 24 ~ 10. 1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호 김대혁 김사회 김신혜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숙자 안민자 안수경 오금애 우 석 은종숙 이남준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종일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장은희 정금자 조명숙 조현광 차익수 차익수 최근희 최점욱 한한수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감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반석중앙교회 산곡교회 샘물교회 쉼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안양구르타기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림나눔선교회 원건축설비 은혜선일교회 주니암교회 주만교회 참종앗더라교회 처음사랑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